

‘오월 정신’ 헌법 수록... 역사 바로 세우기 ‘첫 단추’

SOCIETY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선거 때만 이용 반복... 지속적인 외곡·편향 단초 이재명·이준석 대선 후보들 약속 반드시 지켜야

518! 제45주년 광주민주화운동 <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연대와 희생, 평화를 일깨우는 꺼지지 않는 촛불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이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염원의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45년 간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다.

올해는 공회전만 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8년째 제자리걸음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추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방법론을 두고 평형을 달리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광주를 찾아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다”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44주년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우리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인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말했다.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권 경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모비뒤풀이와 국화 꽃 교체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선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헌법 전문에 오월정신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5·18은 정치적으로만 이용됐다.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하지만 매년 말 뿐이다.

‘오월정신’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식’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다.

그러나 헌법 전문 수록이 매년 공약불이 그치면서 지금도 북한군 개입설, 광주 사태 등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훼손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이자 신군부의 군화발에 짓밟힌 오월영령들에 대한 반성이자 사과이다.

승고한 5월의 광주 정신을 받들고, 대한민국이 오월 정신으로 하나 되는 길이기도 하다.

5·18 관계자는 “여전히 인권을 유린했던 권위주의 통치를 옹호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승고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폄하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헌정과 국민주권 수호의 상징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법원, 영장 발부 적법성·다종의 위력 등 인정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뚫고 밀어 폭력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몰반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급하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종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 불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산구 어린이집 화재 원인은 ‘10대 담뱃불’

흡연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재산피해 4억·인명피해 없어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10대 남학생이 버린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은 14일 흡연 후 담배꽂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재활용 주차장에서 포대 3명과 함께 흡연한 뒤 담배꽂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버린 담배꽂조로 해당 건물 4층 외벽과 내부가 불에 탔다. 여기에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대가 전소되면서 재산 피해는 3억9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장비 29대·대원 85명)을 통해 35분만에 진압됐다.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10대 남학생이 버린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원생 39명과 교사 11명 등 5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이집 관계자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 등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병원에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초 화재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과충전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경찰의 CCTV 등 분석과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초기 발화 지점으로 재활용품 보관 장소가 특정됐다.

이후 병원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선 경찰은 A군이 버린 담배에 있던 불티가 재활용품 수거장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 광주에서 봄철 발생한 화재 1037건 중 부주의(569건, 55.4%)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다. 이중 담배꽂조 부주의는 39.9%에 달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29 달맞이 22:13
예전 19:29 달맞이 06:41



광주	18~23
목포	17~22
여수	16~19
순천	16~21
구례	16~23
광주	17~22
임도	17~23
죽산도	14~19
고흥	15~22
진도	16~21

목포	밀물(고)	03:46 / 15:34
	썰물(저)	08:57 / 20:48
여수	밀물(고)	10:17 / 22:54
	썰물(저)	04:27 / 16:41

‘로또’ 링크고래, 여수서 흔회

만년필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링크고래 전남 여수 해상에서 흔회.

14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15분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 쳐놓은 그물에 죽은 링크고래가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고래 외형에 자살이나 표경총 등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링크고래로,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흔회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